

한국개신교 보수주의와 극우주의 관계 고찰

- 계엄 사건을 통해 본 정치세력화된 기독교에 대한 성찰

신혜진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II. 사건 기술과 관찰: 계엄-내란 사건을 통해 본 정치와 기독교

1. 사건 기술: 계엄령-폭동사건-극우개신교
2. 포착된 현상: 폭력성의 접화

III. 문제 분석

1. 사건의 의미: 폭력을 선택한 정치-종교적 권력
2. 의식 분석

IV. 현상 해석과 성찰: 한국개신교 '극우'와 '보수'의 관계

1. 폭력과 권력: '극우'와 '보수'
2. 권력과 권위: 개신교의 권력 응시와 권위 상실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2.06>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otestant Conservatism
and Far-Rightism: Reflections on the Political Power of Christianity as
Seen through the Martial Law Incident

Ph. D., Hyejin Sh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within Korean society and Christianity. Following the 3 December 2024 martial law incident, the majority of citizens expected a return to stability as the judicial process unfolded. However, as time passed, the nature of the incident changed, and riots broke out among another segment of society. These riots were linked to violent protests and religious gatherings. Additionally, evidence emerged suggesting the involvement of Korean Protestantism in violent political acts. This study focuses on Protestant political activities, particularly the recently prominent Protestant conservatism and Protestant far-right movements, to examine their activities, characteristics, and interrelationships. Through this, we sough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s and contents of violent events, their similarities with other violent incidents, and their ultimate significance. This was examined in three stages. First, we captured the phenomenon, described the event itself in a state of suspension of judgement, and sought its meaning. Second, we analyzed the situation by comparing it with other case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captured phenomenon. Third, we examined the analyzed ev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testant group's identity to explore their origins and essence, while identifying their current position to target their dire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se events do not align with either the social maintenance function or the prophetic reform function of religion. This indicates that the realm of religion, which is based on trust, is disappearing.

Key words: Korean Protestantism, Mimetic desire, Violence, Power, Authority

I. 서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뉴스와 방송에서는 ‘이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였다. 흔히 현대 사회를 ‘탈이념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이념의 중요성이 정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 현상의 정점은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념’이란 한편으로 사람을 모으고자 하며 집결지에 대한 방향성을 주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접미어 ‘-이즘(-ism)’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이념들은 이렇듯 사회 내 개인들의 행방에 대하여 집합지를 마련하며 그 방향으로의 지향점을 주기 때문에 종교학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념을 유사종교로 분류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의 쓰임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살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것의 기제가 된다는 점이다.¹⁾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과는 다르게,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어디론가 이끌 때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 내 개개인들에게 집합체의 응집력과 방향성을 주어서

1) Karl Mannheim, *Ideologie und Utopie*.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서울: 청아, 2000), 20-25, 28. 이 연구는 지식사회학이 논구하는 영역 즉 실제적인 사회적 조건을 탐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탐구 대상은 경험적 영역에서부터 문화사회적 영역으로 나아간다. 제학문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지만 크게 보면 인식론적 형태를 의식하면서 사회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지식사회학의 논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 내 주체가 사회적 유기체에 관여함으로 인하여 그의 사유과정 자체가 어떠하며 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의존성을 띠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특히 한 사회, 특정 사회 계층의 성향을 분석하는 면에서 지식사회학이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유사종교란 종교를 기능면에서 정의할 때, 종교의식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지시한다. 종교는 세계 내적 인간에게 사건과 경험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는데, 이때 개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한다. 참조,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90), 184.

자성이 있는 각 물체들에게 자기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적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에 매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이념, 그리고 종교적 신념은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해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질문을 묻고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들 한 가운데서 우리는, 왜 정치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지, 또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왜 종교를 부르며, 종교는 어떤 때 정치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묻게 되는 현상이 우리 눈 앞에서 사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시점에 종교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 종교적 실천이란, 결국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기능들과 그 관계들에 대해 공유하는 바가 있으므로, 그 비판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의 왜곡은 바로 그 사태의 본질 자체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것까지 비판할 수 있는 자리가 종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의 비판적 자리에서 보면 다음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만약 지금 우리 시대가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임에도 여전히 특정 정치체제와 이념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따르는 이념주의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행위가 “아닌지 알지만 행하는” 냉소적인 합리주의자나 이해관계자일 것이다.²⁾ 지성인 혹은 신앙인은 이데올로기나 이념

의 자의적 사용이 “계몽된 허위의식의 패러독스이며, 우리 모두는 그것이 거짓임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³⁾ 그런데, 특정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토록 그것을 추종하는 것일까?

II. 사건 기술과 관찰: 계엄-내란 사건을 통해 본 정치와 기독교

우선, 이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놓고 볼 때,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음을 본다. 그 해결을 위해서 실마리를 찾아 풀고자 하지만 그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사건은 사건을 낳고 있으며 빠르게 변하는 사건의 논점과 그 핵심은 항상 다른 틀 안에서 보여지고 정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이 사건들의 객관적 형태 속에 내포된 본질적 의미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그중에서도 정치와 종교라는 거대한 영역들이 서로 얽혀있을 때, 그 관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 관계성을 탐구하기 위해 ‘현상 포착’이라는 현상학적 작업을 설정한다. 그리고 먼저 탐구 대상을 지목하고 그 범위를 지정하는 작업으로서 사건을 기술한다. 최근 한국

2)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란 숭고한 대상』 (서울: 인간사랑, 2001), 60; 김상환 역,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42-43; 마르크스에 대한 지젝의 논쟁 발생점은 종교사회학에서 보는 지점과 같다. 즉 마르크스는 종교가 사회질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역할만 할 뿐 그것을 비판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역할은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지점이다.

3) 아도르노 역시 신극우주의가 가진 적대적인 성격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님이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자주 그렇듯이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더 이상 그 실체를 유지하지 못할 때 비로소 자신의 악마적인 성격을, 자신의 진정으로 파괴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종교 시대에 나타났던 마녀재판이라는 것도 사실상은 아퀴나스주의의 절정에서가 아니라 반종교 개혁시대가 확산되었을 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극우주의는 권력이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거의 그 힘을 상실했을 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Theodor W. Adorno, *Aspekte des neuen Rechtsradikalismus*, 이경진 역, 『신극우주의의 양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0), 12-13.

사회에서 등장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포착 대상이 된다.

1. 사건 기술 : 계엄령 - 폭동사건 - 극우개신교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집단적 정체성의 기능이 순조롭지 않을 때 나타나고, 이념이 강조되고 이데올로기가 전파되고 있는 때는 국가 기능이 사회 내 안정적이었던 가치 체계가 무너졌거나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드러나는 때다.⁴⁾ 산업혁명 당시부터 ‘아노미’라고 불렀던 사회의 내적 상태를 말한다. 체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사회는 매우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이 그것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 사회 내 집권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이양하거나 전수할 의도 없이 재집권을 기획할 때이다.

먼저 그 예로서,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발생과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3일에 현직대통령에 의한 친위쿠데타가 발생했다. 그 내란 혹은 쿠데타는, 40여 년 전 군부독재에 의해 일어났던 쿠데타와 계엄령의 내용이 유사한 형태였다.⁵⁾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다른 쿠데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곧이어 계엄을 발표했던 대통령

4) 아렌트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논한다. 우선 아렌트는 권력과 폭력을 구별한다. 국가를 예로 들면, 국가-권력과 전쟁-폭력을 대치시키고 이를 목적과 수단으로 각각 설명한다. 즉, 폭력은 권력이 와해된 곳에서 등장하여 그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참고, Hannah Arendt, *Crisis of the Republic*, 김선옥 역, 『공화국의 위기: 정치에서의 거짓말 · 시민불복종 · 폭력론』 (파주: 한길사, 2022), 152, 158, 202-203, 207-208.

5) 2024년 12월 계엄령 발표에서 그 조항들로만 보면 과거 계엄령 조항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그것에 몇 가지 첨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형태로 보아서 동일한 군사주의적 계엄령의 재현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참고,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77-78. 과거 쿠데타는 정치적 위기로부터 구해주는 수단이었으며, 궁극적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군부독재자는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써 반공을 핑계로 대국민 테러를 가하며,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능하게 했다.

에 대한 탄핵 재판과 몇몇 지위 계급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 사실들과 비교해 본다면 전혀 다른 부분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계엄령 선포 이후 그 사후 처리 과정에서 일어났다.

계엄령 사건 이후 폭동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계엄령은 발표된 후 3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그러나 계엄령 이후에 발생한 폭동사건, 그 후에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것은 '실패한 내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공한 내란에 가깝게 여겨질 사태였다. 그것은 이전과 같이 극소수 군부 엘리트들에 의한 쿠데타로서 군대 장악과 무력적 국가통제로 성공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 그러나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 소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내전의 성과를 내었다는 면에서 그러했다. 계엄선포 후 계엄에 동조하는 집권당과 이에 찬동하는 극우 단체가 벌인 폭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공포 형성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동조하는 집권당의 선동과 극우와 보수주의자들의 집결 등이 있었다. 사회전체의 민주주의 역사라는 점에서 보면 매우 큰 폭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이 현상을 놓고 보면, 내란의 시작을 알린 계엄령 이후 그 집행과 선동자는 멈추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조되면서 내란이 기획한 목적과 의도에는 매우 부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내란 사태는 사회 내 정치인에서부터 일상적 종교인으로까지 연결되고 확대되었다. 오히려 극적인 무력 계엄은 다수 시민들과 이성적 분별력을 갖췄던 군인들에 의해 멈추었지만, 곧이어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정치세력이 집단적으로 등장함으로써 국가 내란 사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계엄선포 이후 초반에는 사건을 종결시킬 시간이 있었다. 그 위법성을 적법한 헌법 재판 절차 진행에 맡기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내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적 대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의 최종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기다리며 민주주의적 방식을 채택했던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같은 시민들에 의한 법원 침입과 폭동사건을 수동적으로 지켜보았다. 서부 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하는 사건은 그만큼 충격적 사건으로 인지되었다. 그것은 소수 독재자의 집권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일부 극우성향 시민들에 의한 내란적 폭동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을 통해 모든 시민들은 민주주의 상징으로서의 사법기관인 법원이 물리적으로 파손되고,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행해지며, 적개심을 선동하는 폭력적 극우 집단의 행위를 뉴스 화면에서 보게 되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주동 행위자는 ‘사이비 개신교 전도사’라 했으며, 정치적 극우세력이라 불리는 소수집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⁶⁾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극우와는 구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 폭도들의 행위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보수적 정치세력과 보수주의 개신교 집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개신교 내에서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국개신교 안에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처럼 폭력을 사용하고 폭동을 일으킨 상황에 직접적으로 동조한 경우는 최근 현대사에서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사건 전까지 개신교 보수주의 교회들은 극우와는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몇몇 대형교회가 정치적 집권당에 참여하고 조찬기

6) 정인선, 장종우 기자, 2025년 8월 7일, ‘전광훈→유튜버→행동대원 체계로 폭동 선동?... 금전 오간 정황도’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1952.html, 최종접속일 2025.08.08. “폭력 행동을 조장한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완성됐다’며 집회 참여자들을 서부지법 쪽으로 유도했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상당수는 경찰 조사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을 듣고 법원 난입을 정당화한 권리 행사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를 중심으로 명령 체계를 구축해 조직적으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회로서 지지를 보내고 협력했으나, 개신교 전체 집단은 정치적 극우 단체와는 거리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부지법 폭동 이후, 보수주의적 개신교인들도 극우 탄핵반대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정치적이고 집단적 행동을 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는 이미 한국 사회 내 여론의 지형적 변형이 있었다. 더 이상 탄핵 문제는 정의라는 가치 하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내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판정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정치적 문제 즉 정파를 구분하는 움직임으로 변해 있었다. 폭동 이후 개신교의 정치 행위는 광화문 앞이나 여의도 대로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또한 공적 예배의 설교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2. 포착된 현상: 폭력성의 점화

이 시기 국가의 여론 양상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한 편으로는 계엄을 통한 내란이 법적 탄핵으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다수 시민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이 불가하며 계엄 목적과 이유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수 정치적 집회가 있었다. 후자는 다수 시민들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격렬하게 지지했는데 그 방식이 극렬한 우파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극우’라고 불렸다.⁷⁾ 이들은 ‘탄핵 반대’라고 쓰여진 피켓과 구호를 들고 과격한 언어들 사용했다. 그러다 서부지법 폭동사건 이후 경찰에 의한 저지와 법적제재 내용이 보도되고 폭동자에 대한 구속이 진행되자 더 이상의 폭동과 같은 사태

7) ‘극우’란 극단화된 보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반공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 인종차별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사상을 포함하여 정치를 세력화한 예는 나치즘이다. 이들은 정치적 억압, 폭력, 강제적 통합 또는 배제,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애국심, 충성심, 종교적 도덕을 요구하였다.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서울: 삼인, 2019), 151.

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대체미디어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시위 모습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헌법을 집행하는 최종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존폐를 언급하고, 재판관들의 개인신상 내용을 유포하여,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든 잠재적인 ‘폭력’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그들의 구호와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하며 계엄령은 통치 행위의 일부로서 무지한 다수 국민의 ‘계몽’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⁸⁾

그러다가 마침내 민주주의 법질서와 그 권위에 대한 공동체적 기대와 지향이 유효하다는 것을 국민 전체가 확인하게 된 것은, 2025년 4월 4일이었다.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국민에 대항하는 군대 소집과 계엄의 의도는 소멸되었고, 그 판결은 민주주의 공화정이라는 한 국가의 체제 혹은 체계가 법적 공동체인 동시에 법 이상의 이념과 신뢰와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임을 재확인하였다.⁹⁾ 내란 사건은 법의 절차적 문제로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그 지향성 하에서 법의 의미와 그 적용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대다수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다고 했다. 그 이전 4개

8) 여기에는 일부 집권당 의원들의 극우 지원 발언이 있었다.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극우의 폭력적 행위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암시적 메시지가 공표된 직후였다. 실제로 구속된 그들은 자신들을 고무시킨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언론에 상기시켰다. 그리고, 서부청에 폭력적 기습 침투와 점거는 불의한 세력에 대한 ‘시민불복종’이라 하였다. 또한 다수 야당이 된 것은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며, 대통령의 배후자가 가지고 있는 혐의는 통상적 경제 활동에 대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앞의 신문, 정인서, 장종우의 기사 참조.

9)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이전의 반민주적 권력 행사에 의해 발생된 최고의 헌법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을 수립한 것 역시 온전히 대한민국이 가지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절차와 그 합의에 의한 것이다. Lon L. Fuller, *The Morality of Law*, 박은정 역 『법의 도덕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05-213; Werner Maihofer, *Rechtsstaat und menschliche Würde*, 심재우, 윤재왕 역,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서울: 세창출판사, 2019), 137-142.

월간 탄핵 정국이라고 불렸던 시기, 수도 서울의 가장 큰 거리에서는 대대적인 시민들의 집회가 끊임없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적 삶을 잃고 불안한 정국에 대한 염려로서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거의 모든 국민이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였고 더 이상 ‘탄핵’을 두고 정치적 분쟁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탄핵 발표 이후에도 극우집회는 계속되었다. 극우집회에 집결된 인원수는 대폭 감소했는데, 최근 몇 달을 돌이켜보면 극우집회에서 독특한 광경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없었던 다른 구호와 피켓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반공주의’ 팻말과 ‘중국’ 혐오를 연달아 외쳤는데, ‘공산주의’는 ‘북한’이 아니라는 점, ‘공산괴뢰국’에 이어서 ‘중국’이 등장한다는 점이였다. 왜 타도 대상이 바뀌었는가? 광화문 예배에서 성조기와 일장기는 왜 나타나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III. 문제 분석

1. 사건의 의미 : 폭력을 선택한 정치와 종교 권력

처음에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러한 극우정치적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준동했던 개신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들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극우 집단의 결집과 공격성은 더 해갔다. 길거리의 중국인 식당을 공격하며 상식적 행동을 넘어섰다. 그들은 소위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가상적 사건에 집중하여 근거 없는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로 자칭하거나 혹은 연령층에 따른 보수정치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침입으로부터 한국과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국이 개신교와 기독교인 초대대통령으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반공주의적 국시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개신교에 의해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발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 그러면서, 초기 개신교의 시작이 미국선교사에 의한 것이며 복음주의적 신앙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근현대사를 그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하여 주장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기독교 신을 믿고 있다고 그에 대한 신임을 지지하면서, 그에 의한 조력이 한국으로 올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그들이 들고 있는 태극기 옆에는 항상 다른 나라 국기가 등장하였는데, 대부분은 미국의 성조기였으며, 이스라엘 국기와 일장기를 함께 트럼프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 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구해줄 것이라 하였고,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 전멸된다고 말하며,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한국 전체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계엄령은 합당했다고 주장했다.¹¹⁾ 이러한 집회의 문제는, 그 참석자들이 거리 시위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차별적 폭행과 침입, 방화, 위협 등을 계속했다는 점이다.

먼저 폭동사건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극우 종교단체에 속한 기독교인

10) 부정선거론을 비롯하여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거나 중국 간첩이 한국의 공공기관에 침입해있다고 하는 등, 중국은 타도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조, 박준용, 채윤태, “반중 앞에서 ‘반북’이 꼬리 내린 5가지 이유,” 『한겨레21』 1554호(2025),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978.html, 최종접속일 2025.08.08.

11) 한국에서 극우 집회의 정치적 구호와 주장 및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중국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당에 반대하는 야당 안에는 이러한 운동권과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주장하며, ‘반국가세력’을 지목했다. 울산에서는 세이브코리아와 같은 보수 기독교 성향의 단체가 집회를 열어 같이 기도하거나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외치고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나눠주기도 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참조, 주성미, ‘계몽령·부정선거 주장에 이승만·박정희 찬양까지... 얼룩진 울산지역 대학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84350.html>, 최종접속일 2025.08.08.

들이 그들의 주장에 명분을 제공하며 폭동에 동조하는 의견과 발언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1) 계엄선포는 공산주의, 반기독교주의 위협에 빠진 한국 사회를 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처사이며 그 이후에 일어난 폭동은 탄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의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¹²⁾ 2) 극우 집회 참여자는 스스로를 ‘좋은’ 신앙적, 애국적 실천자로 여기며 자신들은 정치적 보수주의자들과 대다수 신앙인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고 했다. 3) 집권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반정부세력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지시를 받고 있어서 국가 전체가 위험한 상황이므로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빨갱이’ 혹은 중북주의자로 불렸다.¹³⁾

앞에서 본 정치적 극우 집회와 종교적 시국 예배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었다. 같은 참여자들이 일정한 시공간에서 정치와 종교의 결합된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 역시 일치된 것이었다. 위 내용의 주장은 극우 정치집회에 참여하는 이들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특정한 기도

12) 이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폭동에 대하여 비판하고 우려했던 미국 공화당조차도 2022년 2월, 폭동 1년 후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침입 사건이 ‘정치적 의사 표시(political discourse)’였다고 정리했다. 폭동 당시와 1년 후 트럼프의 정치적 세력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후에 한국 극우주의자들이 정권 획득을 위해, 물리적 힘을 통해 폭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선례가 되었다. 참고, 조병제, 『트럼프의 귀환』 (서울: 월요일의꿈, 2024), 146-149.

13) 김인수 외, 『폭력을 관통하는 10가지 시선』 (서울: 소명출판, 2013), 382, 재인용; 지호 일 기자, ‘원세훈, 촛불집회 트라우마로 선거 때마다 야당 비방 행위’, 『국민일보』 2013년 6월 14일자; 이 기사에서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원 전 원장은 세종시, 4대강 사업, FTA, 제주해군기지 등 국정 현안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모두 중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이탈해 불법적 지시를 수시로 했다”고 전했다. ‘중북세력’은 이 시기부터 야당과 ‘반정부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이라고 했으나, 댓글 중 북한 관련은 2.7%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원과 극우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보수주의적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되기도 하였다. 기독교인들과 극우주의자들은 동일한 신념을 내면화하고 있었다.¹⁴⁾ 동시에 개신교 대형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적인 예배를 통해 전달하고 설교를 통해 정당화하기도 했다. 특히 몇몇의 대형교회 목사들과 개신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나라 전 대통령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왔으며 그러한 자신들만이 국가를 안전하게 반공주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조언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정책 가이드를 통해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자신들의 말을 들어, 반공주의에 철저하며, 도덕적 현안 즉 동성애 문제, 차별법, 노동 관련법 등을 고수하는 정권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도 하였다. 자신을 ‘보수주의자’ 혹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이라고 칭하는 이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설명했다. 자신들은 지난 세대를 ‘이끌어 온’ 한국사회의 지도층(기득권)이자 기독교 국가적 도덕체계를 견지해왔던 ‘애국자’들로서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고대하며 이러한 정치 문제가 기독교의 존폐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스스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고 주장했다.¹⁵⁾

2. 의미 분석

1) 모방의 형태

한국의 극우집회자들은 ‘트럼프’를 따른다고 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같이 들고 다녔다. 그들은 특별히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14) 그들의 공통된 신념 또는 이데올로기라 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숭상한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의 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공산주의를 강하게 표출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전에는 북한이 그 타도 대상이었으며, 현재는 중국이 그 대상으로 변환되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예찬과 비판에 민감하며, 미국에 대한 맹종적 친화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재영 외,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21), 52-53, 173.

15) 위의 책, 92, 104, 111-112, 118, 161-163, 193-195.

지목했으며, 특정 정치인으로서 왜 미국 대통령을 지정했으며, 왜 미국과 같이 개신교가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우리는 물어야만 할 것이다. 왜 극우집회자들은 스스로 본인들을 대한민국의 ‘애국인’이라고 부르면서 왜 미국 의사당 앞에 있는 ‘애국인’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가? 서부지법 폭동을 벌인 그들은 계엄령으로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이 합당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그를 지지하러 왔다고 하였다. 사태 이후 침입과 폭력의 주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경찰서에 잡혀가도 자신들은 정치가에 의해 풀려날 것이며, 경찰이 극우집회자들 전부를 잡아가도 트럼프가 자신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과 트럼프 사이에 실제적인 연결고리를 가진다고 여기는 듯 행동했다. 그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과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구속과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미국의 트럼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서인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계엄령으로 인한 국가적 범위의 폭력과는 다르게 충격적인 부분이 있다. 법원을 침입하는 소란스러운 폭동은 규모 면에서만 보면 군대가 움직인 계엄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경찰에 의해 진압 가능한 민간인에 의한 폭력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내적 충격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법원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법기관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공적 장소임에도 그 침입이 단지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의 구속에 대한 불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또한 이전까지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시민 탄압과 법적 정의에서만 움직였던 시민들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난 점, 그것은 내란 양상이 한국 사회 내부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의 점화선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극우지지자들이 사건의 종결에 이르러 자신의 구속적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변으로 트럼프와 미국의 원조 혹은 구조를 언급했다는 점은, 그것이 낯설지 않은 극우 집회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임에도, 트럼프와의 직접적 관련설과 더불어 심리적 관련설에까지 관심을 끌었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극우 지지자들은 계엄령을 선포한 내란 주모자에 경도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여론은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계엄선포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채로, 여기에 관련된 군검경 관계자들에 대한 불신임과 동시에 처벌 문제를 고심하던 때였다. 그런데 극우주의자들은 내란자에 대한 옹호, 사법기관의 무시, 폭력적 표현의 정당성 주장과 함께 미국의 트럼프를 지목하여 자신들을 변호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몇 년 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극단적 사고와 사회현상을 집약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2021년 1월에 워싱턴 의사당에서 일어난 쿠데타였다. 그 이전까지 세계 국가의 상식으로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강력한 국력과 정당성을 보유하고 한 때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하기도 했던 국가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투표 선거원칙, 즉 법치국가의 형식을 중요시했던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때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들의 지지자가 실권한 이유가 '부정선거'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장소와 길거리로 나섰다. 민주주의적 선거가 사기극이라며 길 위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후에 극우주의자들이라고 칭해졌지만, 그들과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결합은 점차 다음과 같은 표어까지 낳았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셨다."¹⁶⁾ 더 나아가, 그들은 "신

16) 김평호, 『보수에서 극우로: 공화당의 추락과 미국 정치의 위기』 (서울: 삼인, 2022), 159. 남부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극우주의에 의해 확산된 이데올로기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선악이분법적 구도로 세계를 구분하였다. 기독교

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군대들을 쳐부수었다”라고 외쳤다.¹⁷⁾

최근 일어났던 두 나라의 내란, 2021년 미국과 2024년 한국에서 일어난 두 쿠데타는 공통점이 많았다. 우선, 두 쿠데타의 가장 큰 공통적 특성은 집권하고 있던 정치적 보수세력의 실권과 재집권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내란은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 내란의 주체가 군대나 외부의 인물이 아닌 국가 최고권력자이자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더 큰 권력에 대한 권력의 쟁투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란이 일어난 직후부터 그 해결책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을 예고했고, 사회 내에서 그것과 관련된 관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었다. 이 관계들 중에서도 주의하여 볼 것은 정치와 종교의 관계이다.

한국의 경우 내란 사건은 사건 직후와는 다르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인식되었다. 정치적인 이슈로 치환되어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정치적 틀 안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찬성-반대의 정치적 문제로 가게 된 과정에는 종교가 큰 몫을 했다. 극우 정치집회 중 다수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설교, 기도, 헌금 시간이 있었으며, 소수의 극우지지자 외에도 다수의 보수주의 개신교인들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국가 내 질서, 권력에 대한 복종, 정교분리를 주장하던 보수적 개신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집권당에 동조할 것을 추동하면서 한국 사회 내 시민들에 의한 여론에 맞서기도 하였다. 이는 집권당과 대형교회와 보수적 개신교

국가주의는 정치적 극단주의를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형태를 말한다.

17) 위의 책, 160. 이런 구호가 시사하는 것은 국가 내 재집권 시도세력과 그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세력이 종교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표출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관여는 이전부터 나타났다. 2003.7. ‘이라크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이다.’, 2004.1. “신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군대들을 쳐부수었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인들의 연결이 내란 옹호와 탄핵 반대로 이어지며, 한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특정 정치가 의도한 바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는 ‘분열의 정치학’이라고도 불린다.¹⁸⁾ 이러한 정치 전략은 ‘이슈나 논쟁으로 대중의 편을 가르 후 정치편의 재편성을 꾀하는 것’이다. 이 의도를 가지고 선거와 정치 전술로서 이분법적 사고를 형성하여, 사회 통합이 아닌 사회 분열로서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다.

사실, 한국에 한발 앞선 예가 있었다. 처음에 ‘분열의 정치학’은 미국공화당 남부 전략이었다. 그들은 문화적 가치, 도덕 문제들을 선거 정치의 쟁점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낙태, 총기규제, 정교분리 문제, 동성애 등등 사회적 이슈를 논란으로 만들어서 대중의 편을 가르고 정치편이 재편성되도록 하였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이분법적 도덕 논쟁을 일으켜 이슈를 선악의 문제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적과 동지를 나누고,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였다.¹⁹⁾ 닉슨 이후 공화당 보수들은 이런 정치 전략을 구사해왔는데, 그 결과 사회 내부의 간극과 분열을 더욱 깊어졌다고 정치전문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말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 즉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남성우월주의, 폭력적 성향과 태도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점이다. 미국 보수주의가 지역적, 파당적 문제가 아닌 미국 전역의 일반적 문제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 배경에는 1960-70년대 공화당 대중 정치와 뉴라이트와의 연관성이 자리한다. 공화당 밖에 위치한 단체로서 뉴라이트는 일반 시민, 보수단체,

18) 위의 책, 105.

19) 위의 책, 106-107.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기업이 결합한 기업 중심 체제를 중시하며, 합리적 사회 규범이나 민주주의를 저평가한다. 백인우월주의적 차별, 위계질서, 폭력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형성하였다고 평가된다.

보수성향을 가진 목회자와 신도들로 구성되어있었다. ‘뉴라이트’는 기독교 우파를 형성하여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중화하였다. 대중적 정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선거 전략 중심에 위치하며, 사회보수화 운동을 통해 지지층의 저변 확대를 시도했다.²⁰⁾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우파는 교회를 정치세력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신들의 ‘선거 결정력’을 크게 평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했다.²¹⁾ 그 이후, 1976년 카터, 1980년과 1984년 레이건, 2000년대 부시 행정부, 2016년 트럼프 대선에까지 지지표를 보내며 선거에 관여해왔다. 그들은 미국의 도덕 문제와 윤리 회복을 목표로 들면서, 전통적 가족윤리, 동성애자 반대, 성교육 반대, 여성평등권 반대, 성경교육, 창조론 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정치적 극우주의자들과 기독교는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지형 전환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행정부로부터 의회로 향하며, 미국의 대중적 생활 정치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고자 했다. 이런 행보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더욱 큰 확장을 가져왔고, 극우 미디어까지 합세하면서 ‘기독교 국가주의(Christian Nationalism)’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²²⁾ 공화당이 기독교

20) Corey Robin, *(The) reactionary mind: conservatism from Edmund Burke to Sarah Palin*, 천태화 역, 『보수주의자들은 왜』 (고양: 모요사, 2012), 57. 그 이전 1950년대까지만 해도, 보수주의는 ‘극우’ 또는 ‘수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합리적이고 온건한 정치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반공주의적 강경파가 실용적 노선을 선택하면서부터 보수주의는 1980년대까지 미국 보수의 헤게모니를 지속시켰다. 뉴라이트는 이러한 보수 정당 밖의 또 다른 정당으로서,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해 작용하는 선거전략팀, 전술지원팀이었다. 개신교 48%, 가톨릭 20% 정도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이들은 ‘기독교 연대’, ‘뉴라이트’, ‘도덕적 다수’ 등등의 단체를 세워 공화당을 지지했다. 참조, 김평호, 『보수에서 극우로』, 112-119.

21) 김평호, 『보수에서 극우로』, 151.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중심부로 이동하였다. 그 이유는 공화당이 그들을 묵인, 방조, 이용해왔기 때문이었다. 보수주의 정권은 극우 언론인에 훈장을 수여하고, 폭스 뉴스는 공화당의 선전 마이크로서 여성비하, 성 상품화까지 방조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극우 미디어는 상식이나 진실, 사실보다는 극단적 양상의 정치관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22) 위의 책, 117. 이에 더하여 극우미디어와 기독교 근본주의는 가짜 뉴스와 인종주의를 확대, 전파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양산했다고 평가된다.

국가주의와 본격적으로 결합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정치적 구호는 극단화되는 경향을 보였다.²³⁾ 백인우월주의가 공개적으로 위협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정부의 탈규제적인 경제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그 결과 형성된 백인노동자들의 실직과 상대적 박탈감은 여과 없이 사회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 표현으로 등장했다. 모순적이게도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급속히 가속화된 사회 양극화 현상과 계층 불평등 현상에 대한 불만을 공화당과 정부가 아닌 더 약한 집단, 즉 타인종, 여성, 이민족, 타국가에 쏟아내었다. 공화당은 이러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적절하게 이용한 대선주 의자였다고 말해진다.²⁴⁾ 최근 트럼프 지지자들의 구호를 보면, 이러한 배제주의, 권위주의, 패권주의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극우 미디어는 거친 언사와 위협적 행위를 보도하며 배타적이고 배제적 태도를 드러내 보였다.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되었고 음모론이 생산되고 확산되며 사회 내 불안과 공포 지수가 높아졌다. 이 중에 팔목할 만한 것은 특정 정치를 직접적으로 동조하는 종교적 발언이었다. 여기서 이분법적 논리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공격적 용어들이 생산되었고, 그것은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러한 정치와

23) Michael Oh, 2024년 10월 2일자 '권위주의와 기독교 국가주의의 위험한 동거' 『뉴스엔조이』, <https://www.newsjoy.us/news/articleView.html?idxno=24929>, 최종접속일 2025.08.08; 김평호, 『보수에서 극우로: 공화당의 추락과 미국 정치의 위기』, 160. 크리스찬 국가(Christian Nation)를 표방하는 기독교 국가주의는 근본주의 기독교 도덕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이념이다. 공화당이 이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그 결과 보수의 극단화 현상을 확산시켰다. '극우'란 극단화된 보수를 의미한다. 그들은 반공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 백인우월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 정치적 억압, 폭력, 강제적 통합과 배제,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며 동시에 애국심, 충성심, 종교적 수준의 도덕을 요구했다.

24) 조병제, 『트럼프의 귀환』, 100-115. 트럼프의 정치 전략은 미국 사회 안에서 계급이 양극화되고 있는 상태를 완화, 통합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본노의 정치, 분열의 정치, 진영의 정치'를 주도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층을 확보, 확대해가는 방법이었다.

종교의 결탁이 사회에 주는 영향들은 예상보다 컸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론’을 강하게 주장하며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로 나섰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 절차로서의 선거라는 것을 ‘사기극’이라고 부정하고 폄훼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평가된다.²⁵⁾ 트럼프와 공화당은 미국의 가장 좋은 시절과 지위를 회복하고 권위 또한 되찾으려 했지만, 사실상 권위가 무너지자 기독교인들까지 결합하여 위계적인 권위주의, 반공주의, 국수주의, 인종우월주의, 반평등주의, 가부장적 남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 결과 사회 내 하층 계급의 사회적 불안감과 무기력, 소외를 해소하려던 정치적 전략은 폭력을 선동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일상의 모든 장소에서 일어날 지도 모르는 폭력에 대한 공포는 심화되었던 것이다.²⁶⁾ 분열의 정치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의도와 결과로서 사회적 분열이 점차 커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정치를 거짓의 정치, 맹목성의 정치, 파괴의 정치라고 부른다.

2) 모방의 내용 : 정치와 종교의 결탁 - 미공화정과 ‘기독교 국가주의’의 예

사실 한국 내 폭동 주동자 또는 옹호자들의 구호를 다시 살펴보면, 그들의 구호는 당시 트럼프의 쿠데타를 지지했던 극렬주의자들의 구호와 흡사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실제로 그들의 구호에서 중심이 되었던

25) 위의 책, 148-149. “2020년 선거를 도둑맞았다”라는 트럼프 주장은 그 지지자들에게 와서는 부정선거론으로 확산되었다.

26) Ruth Ben-Ghiat, *Strongmen: Mussolini to the present*, 박은선 역, 『극우, 권위주의, 독재』 (파주: 글항아리, 2025), 274. 미국 사회에서 ‘극우’가 정치적 타락을 가져왔다고 말해지는 이유는 그들의 폭력이 사회적 신뢰를 깨고 중요성을 퍼뜨렸다는 데 있다. “공공연한 박해 행위는 독재자가 겨냥한 집단을 처벌하는 것을 일상화하고 사회 불안감을 조장하는 데 보탬이 된다.”

것은, ‘부정선거론’에 의한 실권 강조, 민주주의 상징으로서의 국회 또는 법원 침입, 격렬한 폭도들의 폭력적 행위, 극우주의자들의 비이성적 발언들이다. 이런 행위를 벌이고도 자신들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동일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태극기와 나란히 성조기를 들고 미국의 공화당 정부를 추앙했던 한국의 극우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함대를 이끌며 트럼프가 그들을 구하러 오지는 않다고 해도, 극우주의자들이 무엇에 기대어 어떤 바램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단면을 포착할 수는 있게 한다. 다음 사진은, 한국의 극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일의 범위, 그들의 욕망이 투사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설명해주는 바가 있다.

우선 이들은 정치적 집결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자체를 ‘계몽’이라고 보고 이러한 주도자를 옹호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는 계엄령을 발표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이며 ‘하나님이 이를 원하신다’고 했던 말과 동일하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모두 옳으며, 자신들이 신적 권력을 대신하여 대통령을 옹위해야 한다고 국회로 결집했던 미국 개신교 보수주의 혹은 극우주의자들의 전례로 볼 때, 한국 극우집회 참석자들은 그러한 ‘정당한’ 일을 앞서 행한 사람이 트럼프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이므로, 그는 다시 재집권에 성공했고, 한때 실권했지만 그것은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의회에 지지자들이 진입하여 폭동을 행했을 때 그 문제가 부상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재집권으로의 결집이 가능했다는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²⁷⁾

27) 정치-종교적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이미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그것을 재현할 것이라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다. 그 근거로는 미국에서의 종교와 정치의 결합을 예로 들고 있다. 즉 트럼프가 복음주의 기독교와 사회적 보수주의 세력의 연합 결과로 공화당의 주된 목표인 보수주의 가치를 입법화하였고 트럼프 역시 이를 통해 괄목할만한 결과를 냈다는 정치적 신화를 자신들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박홍민·국승민, 『미국에서 본 미국정치』 (서울: 오름, 2024), 152;

그 논리에 따르면, 정권의 재획득을 위해서는 의회 무력 침입이나 쿠데타 혹은 ‘계몽령’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극우주의자로서 나선 그들 인식에는, 이미 자신들이 옹호하는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와 힘에 의한 정당성 확보가 성공한 모델로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벌어졌던 트럼프 정권의 쿠데타와 성공한 재집권의 사례가 있으며, 그 성공한 쿠데타 속에는 정치적 권력과 정권 획득을 위한 물리력, 경제적 힘의 행사를 포함한 여러 차원의 힘이 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극우집회 참여자 또는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성공한 쿠데타’라는 모델이 이미 ‘모범’으로 선재했고, 그들은 집권 정당과 기독교 보수주의자들과의 결합과 연결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²⁸⁾

이처럼 극우주의적 개신교인들의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였다. 그 집회가 항상 예배로 시작하는 종교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도, 그 극우 세력의 근원은 개신교적, 신학적, 종교사적인 근원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항상 정치적 행위가 그 선전 대상을 요구하듯, 그들의 행위 역시 모든 공적 장소를 타겟으로 한 이념적 선전 행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만 놓고 보면, 그들은 폭동 및 폭력 행위를 하였을 때 자신들의 행동을 매우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조병제, 『트럼프의 귀환』, 151.

28) 결국 모델을 두고 모방을 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그 대상과 동일시하는 행동 주체가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는 원본과 복사본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욕망의 주체가 선망하는 모델로서 원본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원본을 충실하게 복사하려는 레플리카(replica, 복제품)가 있다. 욕망 주체는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쟁취한 성공적 모델을 자신의 현실 안에서 정치세력화하고자 하며, 이를 종교적 명분으로 쟁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방 욕구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그 존재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시작에서 원본과 조건적 친밀성이 있다면 동일 행위를 재현한다. 르네 지라르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모방적이다. 그러므로 모델의 욕망을 흉내 내어 그 모델과 똑같은 대상을 선택한다.” Girard Rene, *(La) violence et le sacre*,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2001), 219.

매우 떳떳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들 뒤에 있는 큰 정치적 ‘힘’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경찰 구속 정도는 자신들의 정치적 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는 생각과 말을 발설하고 그것을 사실로 굳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이다.²⁹⁾ 이러한 확신과 생각, 일종의 행위 판단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자신들의 행위를 추동하고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이 그토록 크게 보았던 정치적 힘이었다는 점이다.

그 힘의 원인을 미국이라는 국가와 집권보수정당인 공화당에서 찾고, 또한 그로부터 연계되는 개신교적 신앙 관련성과 집단적 힘에서 찾은 것이다. 그들의 행위에서 결과론적 동기를 도출했던 것은 자신들의 애국적인 신념으로부터도 아니었으며,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긍지나 주체성도 아니었고, 폭력과 그 지지의 행동 동기와 그 마음 행위의 판단 기준은 그 자신들의 생존의 기반이라고 생각한 패권국의 힘이었던 것이다.³⁰⁾ 자신들의 모델인 ‘트럼프와 그의 쿠데타’는 성공한 힘의 실재이자 현현이었던 것이다. 이 힘이야말로 그들 자신에 대한 존재 기반이므로, 이 힘을 따르는 그들의 행위는 ‘폭동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 힘에 대한 추동력을 추양할 때 생기는 믿음의 동질화, 곧 관계의 동질성이 존재적 동일성으로 신념화되는 과정이 개입되었

29) 분열 속에서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도덕적 아버지, 종교적 힘, 정치적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은 말한다. 보다 쉽게 결심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가치있는 목표를 제시하여 실행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단편 신화적 세계’이다. 그 속에서 힘은 개인에게 ‘신의 영광을 위하여’, ‘신의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살려내기 위하여’라는 고귀한 목적을 주는데 이를 위해서 개인은 사회적 상식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감수할 필연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Slavoj Žižek, *Did somebody say totalitarianism? : five interventions in the (mis)use of a notion*, 한보희 역, 『전체주의가 어쨌단구?』 (서울: 새물결, 2008), 32-33, 47.

30) 두 나라의 구호와 행동의 유사함은 ‘모방’ 관계를 드러냈다. 또한 같은 형태를 가졌다고 한국 사회 내 ‘극우’와 그 현상이 ‘파시스트와 파시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에서 ‘모방’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났듯이,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 ‘극우’는 오히려 신식민지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조, David Harvey, *(The) new imperialism*, 최병두 역, 『신제국주의』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5), 46-47.

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 자체에서, 혹은 개신교 안에서 신과 합일 가능성이 언급될 때, 이를 비지성적-무비판적으로 신학적 해석 없이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힘 자체를 자신들의 실제적 동력으로 여기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³¹⁾ 무엇보다 이들의 사고는 정치와 종교의 긴밀한 연관성에 놓여 있었으므로, 폭동이라는 행위 또한 자신들이 구상하는 세계관의 구현을 위해 정치적 집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고가 발동할 때 행동이라는 실천적 차원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이 같은 정치적 극우주의자들의 폭력 행위를 두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이러한 극우 시위 집단 혹은 폭동 집단의 문제는, 정치적 분열을 가속화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폭력 행위로 가로막거나 대체하는 치환적, 수단적 특징이기에, 그것의 종말은 결정적인 힘에 의해 소멸되며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수단적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는 폭력수행자들은, 한 사회 내에서 현재 집권당이나 보수주의 혹은 극우 정당의 구호를 똑같이 따라 사용하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표출하고, 이와 동시에 야당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으로 공격한다는 것이다.³²⁾ 그래서 이들 극우주의자들의 집단차별적이고 계급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언어는 매우 흡사하다. 한국 서부지방에서 일어난 폭동

31) 역사상 유사 종교집단 혹은 종교의 일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성과 정치적 힘은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 쉽다. 성서 혹은 종교체험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전통이라는 객관적, 이성적, 공통체적인 해석 기반이 공유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렇지 않을 때 성스러운 초인간적인 파괴력으로 드러난다.” Paul Ricoeur, *La symbolique du mal*, 양명수 역, 『악의 상징』 (서울: 문학과학사), 44.

32) Hannah Arendt, *Crises of the Republic*, 김선옥 역, 『공화국의 위기: 정치에서의 거짓말·시민불복종·폭력론』 (과주: 한길사, 2022), 221. 집단적 폭력이 산출하는 강한 형제적 감정 혹은 동지에는 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으로 계몽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희망 혹은 환상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아렌트는 말한다.

이나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이 유사하듯, 그들의 구호도 동일하며, 그들의 표현 방법도 이분법적 차별주의로 동질적이었다.

IV. 현상 해석과 성찰: 한국개신교 ‘극우’와 ‘보수’의 관계

1. 폭력과 권력: ‘극우’와 ‘보수’

정치적으로 세력화된 한국개신교는 ‘분열의 정치’로 요약될 수 있는 수많은 정치적 행위들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하여 왔다. 특히 극우화된 개신교도들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보도되었던 똑같은 구호와 주장, 똑같은 행동 지침과 행위들을 재현하였다, 정파를 구분하여 배척하고, 정치인이나 법조인을 타겟으로 삼아 위협하고, 공적인 법원과 공공기관을 집중공격하며 방송으로 송출하였다. 그럼으로써 사회 내 불특정 다수가 이러한 폭력의 행사를 보게 하여 그들이 일상 속에서 언제든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공포심이 생성되도록 도모하였다.³³⁾ 이러한 폭력의 모방은 권력을 다시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의 재확인 행위였다.³⁴⁾

그런데 이 폭력 행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열의 정치’ 전략으로서

33) Wolfgang Sofsky, *Traktat über die Gewalt*, 이한우 역, 『폭력사회: 폭력은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파주: 푸른숲, 2010), 12-13. 사회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공동의 보호를 위해 만든 예방 조치인데, 인간을 협력하고 단합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폭력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2024년 12월 3일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폭력적 권력과 맞서 단합하고 협력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곧 보수주의와 극우에 의한 여론은 ‘폭력과 맞섰던 시민들에서, 시민 ‘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다음 저자는 이러한 한국 사회 징후를 ‘신권위주의’로부터 ‘포스트-신권위주의’로의 이행으로 정리한다. 한국개신교가 반공주의로 파괴적 ‘증오’를 양산했는데, 이를 극우의 ‘증오의 정치학’이라 부른다. 박권일,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서울: 자음과모음, 2014), 99, 105, 128-133; 김진호, 『극우주의와 기독교』 (서울: 홀가분, 2024), 114-117

34) Roger Dadoun, (*La violence: essai sur l'“homo violens”*, 최윤주 역, 『폭력: 폭력적 인간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6), 77-78, 80.

정치적 극우주의자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종교 안에 있는 두 세계론을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³⁵⁾ 극우 정치는 이제까지 존재했던 이원론의 사고 구조를 정치적으로 매우 탁월하게 이용하였다. 이상 세계에 대한 열망과 현실 세계에서의 상실감이 힘을 추종하고 권력에 복종하게 하여, 현실 세계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좌절감이 권력 욕구로 변환될 수 있도록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한 가장 근래의 예로는 독일민족주의와 결합한 프로테스탄트 나치주의가 있다. 독일의 경우 자민족주의와 루터 이후 프로테스탄트적 기독교가 결합하면서 신학의 우경화 작업까지 진행된 바 있다.³⁶⁾ 제국의 기독교가 된 이후 일상까지 정치적 나치당의 교훈으로 신앙 원칙을 삼았던 개신교는 신앙 활동과 내용까지 정치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때 전체주의적 기독교 혹은 기독교화된 우파정치가 기독교에게서 배우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성서적 진리가 아니라, 종교가 사회 내에서 작동하는 원리였던 것이다. 극우정치는 어떻게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종교로서 인간을 조정하고 새롭게 교육하여 원하는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심한 결과, 자신들이 건설하려는 제국의 표상이 기독교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혹은 두 왕국설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원리를 정치에서 사용했다. 현실 세계와는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이 ‘신의 국가’는 이상주의적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므로 이 같은 표상에 ‘복종’을 강요하기 쉬웠고 그 속에 내용만 채우면 되는 용이한 상태였던 것이다.³⁷⁾ 결국 극우주의자들이 기독교로부터 차용한 것은 절대적 권위 체제와 도그마의 형식 혹은

35) 추태화, 『권력과 신앙: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 (인천: 씨코북스, 2012), 178.

36) 위의 책, 177.

37) 위의 책, 28-31; 결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사상에서 공통한 중요성은 “우리가 허위 의식의 가능성을 체험한다는 데 있다.” Karl Mannheim, *Ideologie und Utopie*,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청아, 2000), 102.

구조적이거나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었다. 나치 극우당은 처음부터 기독교 친화적이라고 적극 표방했으나, 사실 독재자 히틀러가 기독교로부터 배우고자 한 것은 진리나 성서의 교리나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독재자 자신이 기독교적으로 보이도록 위장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을 당시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했다. 자민족주의에 의한 경제적 이익과 민족의 우월성, 애국심에 빠져 있어서 제국종교가 되어가는 개신교를 보지 못했다.³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개신교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극우주의자들의 정치집회와 개신교 극우집회의 구호적 일치는 그 주장과 행위에서 드러났다. 또한 미국의 정치와 종교의 결합 즉 트럼프 지지자들의 구호와 개신교극우-보수주의의 구호가 ‘닭은꼴’로 동일하다는 사실도 보았다. 닭은꼴 삼각형으로 비유한다면, 각 꼭지점은 정치-종교-경제이며, 각각의 점들은 서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연결선을 가지고 있다.³⁹⁾ 특히 정치-종교의 연결성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 거리에서 열렸던 극우정치 집회는 동시에 예배집회로 행사되어 그 연결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정치를 종교로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도 포착한 바 있다.⁴⁰⁾ 그 예배라는 종교적 행위는 정치적 욕망을 정당화해 준 의례였으며, 그것의

38) 위의 책, 74-84.

39) 이 논문에서는 삼각형(트라이앵글) 구도에서 정치와 종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종교의 결합 현상은 경제적 분야 혹은 군산복합체 문제를 빼놓고는 말하기 어렵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개신교와 이 ‘트라이앵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문제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지난 분단 시대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신혜진, “통일신학의 주체 개념으로 본 분단체제와 한국기독교”, 『한국전쟁 70년과 ‘以後’ 교회』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1), 172-177.

40) 이문영, 『폭력이란 무엇인가: 기원과 구조』 (서울: 아카넷, 2015), 제4장 참조. 종교의 근본주의 원리는 제국주의 형성 원리와 다르지 않으며, “외형적으로는 종교적 담론을 구사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목적은 예배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점, 의례참여자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반복적 행위로 구체화해왔다는 점이다.⁴¹⁾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으로서 이데올로기는 ‘속이는 사람들’의 것인가 아니면 ‘속는 사람들’의 것인가? 또한 개신교 안에서 보수주의자들과 극우주의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 구분은 무엇에 의해서인가? 국가 내 시민들이 ‘탄핵찬성/탄핵반대’와 같은 구호를 외쳤던 상황에서, 그들은 모두 계엄령 선포에 공감과 지지를 보냈고 ‘그 표현으로서의’ 폭동을 이해하며 심정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폭동이나 폭력과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보수주의적 입장이었다. 그 폭동의 절박함과 극렬함을 여러 참여 행위로 취했던 극우적 입장과는 무엇에 의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까? 단순히 같은 심정이지만 참여도가 달랐던 것일까? 참여 방식으로서 과격성/고상함과 같은 선택적 폭력 채용의 문제였을까?

폭력이 행해지는 이데올로기의 선전 행위 또는 프로파간다 속에는, 항상 정치적 원본(原本)을 기획한 정치인과 행동주의자인 극우주의자들이 구분된다는 점이다.⁴²⁾ 이들 관계는 수평적 아닌 수직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정치와 종교의 연결 속에서, 심지어 개신교 내 정치집회 안에서도

41) “신화의 세계에서 집단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폭력은 자각되지 않는다. 신화를 만드는 사회는 자신의 사회를 해석할 수 없다. 폭력적 만장일치가 만들어낸 환상을 보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재인용, 이해완, 전우택 외 6명, 『평화와 반(反)평화: 평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서울: 박영사, 2021), 113; 르네 지라르의 모방 욕구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폭력의 모방일 경우, 또한 그것이 종교와 관련 있거나 실제로 종교에 의한 것일 경우를 말했다.

42) 이찬수, “탈폭력적 폭력: 신자유주의 시대 폭력의 유형”, 『폭력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15), 111-112. 이 글의 저자는, 긍정적 폭력은 박탈(privative)하기보다는 포화시키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어서, 보다 ‘은밀하고 교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구분은 유효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 구조를 보아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개신교는 한국정치권과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자신들은 정치적 권력 순위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정신적인 자문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개신교는 종교 자체를 흠송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그 행동 규정과 범위가 결정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개신교의 반공주의와 도덕주의 이슈들에 동감하며 같은 구호를 외쳤지만, 사실은 동원된 개신교는 그 정치적 행위의 충실한 수행자로서 통제되어왔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한국개신교와 보수주의적 정치인들은 동일하게 정권의 재집권을 목표로 하며 극우 종교집회를 통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금을 모았지만, 그 집회 주관자는 신을 경시하며 이용하는 것임을 모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배를 가장하여 정치-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기독교임을 알면서도 같은 이데올로기 하에 종사하며 ‘속는 척’ 했다는 점이다. 여기 종사자들은 마르크스가 이데올로기를 지칭한 것처럼 거대한 이념으로서의 이데올로기 또는 신앙에 의해 ‘속는 자’가 아님을 뜻한다. 이미 유사종교로서 이데올로기나 사이비종교로서의 극우 종교집단의 정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들에 의한 정치와의 연결책 확보, 투표수와 결집력, 선전 효과, 동원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왔다. ‘속이는 자’로서 종교는 자신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포하고 있었고, ‘속이는 자’로서 정치는 자신의 통제 대상으로서 종교를 택하여 그 행위 능력을 시험했다. 사회 내 시민의 욕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 질서와 공동체적 평화를 되찾는 것이지만, 정치-종교적 ‘극우’는 이런 방식과 거리가 멀었다.

2. 권력과 권위: 개신교의 권력 응시와 권위 상실

여기서 극우주의는 사회 계급 양극화의 결과물로서, 신자유주의 체제

가 가져온 그림자이다. 사회 구조적 불평등의 산물이자 소외당한 집단의 아우성이었다. ‘극우주의’는 편의주의적 보수주의에 결합될 만큼 박탈당한 욕구 충족에 급박한 또는 절실한 행동주의적 ‘이념’이었다.⁴³⁾ 이때, ‘보수주의’는 한국개신교 안에서조차 정치 세력화되어 각자의 이익 관계와 목적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자기목적적 정치 활동이며 그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극우주의 속 사람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기대하는 욕구, 그것과 보수주의 속 사람들의 경험했던 권력에 대한 재집권 욕망, 그 둘이 결합된 것이 쿠데타와 내란의 본질이었다.

그렇다면, 같은 구호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도 서로 구분되고 내적 차별 구조를 또 만들면서 이합집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과 폭력, 그것은 또 어떤 관계인가? 앞에서 보듯, 사회 내 양극화된 계층의 분화가 더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여겨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개념이나 의지가 없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권력 유지에 쓰고자 할 때, 마침내 권력은 ‘폭력’을 법적 예외 공간인 듯 속여서 용인하고 사용하였다.⁴⁴⁾ 그렇지만 그 권력-폭력 관계의 산물은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 결속감과 그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신뢰 관계의 상실이었다.⁴⁵⁾

43) 사실 또다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순적이게도 그러나 당연하게도 극우주의자들로 칭해졌던 사람들이다. 극우주의와 그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박탈감, 상실감, 허탈함, 무용감 등과 같은 수식어가 항상 뒤따른다. 그들은 심리적 소외는 사회체제적 문제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도르노는, 그들의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무지성적, 무비판적, 무개념적, 무조건적 행위와 실천 속에 권위주의와 독재주의가 자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한다. Theodor W. Adorno, *Aspekte des neuen Rechtsradikalismus*, 이경진 역, 『신극우주의의 양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0), 40-42.

44) Hannah Arendt,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1970), 4.

45) 위의 책, 51-53. 폭력을 사용한 권력의 결과는 결국 신뢰 손상으로 귀결된다. 이는 경제적 액수로서 그 손실이 환원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전체 사회적 상실감과 충격, 그것에 의한 기회비용 상실은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국내 상황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이는 미국정치종교를 모방한 한국정치종교의 전략과 그 결과였다.⁴⁶⁾ 집권과 거래. 이런 정치를 위해 개신교 보수집단과 극우 옹호자들은 사회와 시민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현시했다.⁴⁷⁾ 그 결과 전체 기독교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게 만들거나 무력화시켰다. 이들을 활용한 정치세력들은 사회 내 개인과 개인과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의도대로 그 뜻을 이루었다. 다른 생각이나 비판적 의견 표현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며, 더 나아가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적 힘으로 침묵하도록 만들곤 했다.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대사회적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각각 다른 정치적 지형에서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포착되어왔다.⁴⁸⁾ 기독교 안에서 특히 대형교회의 정치적 발언들은 교회

같다. 한국 사회 내에서는 계엄령 선포 이후 군대 동원, 휴전선 인근 전쟁 유발, 국정 혼란, 경제적 침체, 대응능력 저하, 외교 마비, 국민 분열 등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신임도나 국가 신뢰도는 물론이고,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추락, 군에 대한 신뢰 유보,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 46) 권력(쟁취) 모델이었던 미국의 경우, 미국공화당 정부와 기독교의 결속은 처음에는 매우 견고했고 정당은 기독교 친화적으로 보였지만, 반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공화당 정부의 정책은 결국 성서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다고 평가된다. 정부 예산 적자와 국가 채무를 늘렸던 미국 공화당의 경우 재집권 실패 위기 때마다 종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다수 기독교 집단은 이에 대해 응답하며 이익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앞에서 보았다. 그 결과 민주주의에서의 이탈, 사회 불안정성의 확대, 극대화된 양극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바바라 월터의 표현으로는, “미국은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 중간의 무질서를 의미하는 아노크라시(Anocracy) 상태다.” 전홍기혜, 『아노크라시(Anocracy)』 (서울: 숨쉬는책공방, 2022), 178; 정책 연속성은 떨어졌고, 미래 비전보다는 단기적 이해득실이 중시되며, 정당 양극화는 ‘감정 양극화로 발전했다. 박흥민·국승민, 『미국에서 본 미국정치: 선거와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오름, 2024), 155-162.
- 47) 라강과 지젝은 공통적으로 현대인의 신 개념을 설명하면서 정신분석학적 분석을 단행한다. 아버지 은유가 가지고 있었던 힘에 대한 위력, 그 거대한 국가적 권력과 폭력의 용인과 같은 모든 가부장적 힘에 대해 가지는 ‘아이’ 혹은 ‘이들의 무기력으로 설명한다. 이는 아렌트를 통해 앞서 설명한 ‘권력’이 체기능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힘에 대한 욕망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참고, 김석 공저, 『라강과 지젝: 정치적, 신학적, 문화적 독법』 (과주: 글항아리, 2014), 114-117.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행해졌는데, 이러한 정치적 특정세력에 대한 옹호는 내란의 충격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서에는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종교가 가야 할 길은 종교 밖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국개신교 보수주의도 아니고 정치적 극우세력도 아닌 교회 밖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종교가 가야 할 길이 지시되고, 그 목표가 제시될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기대하는 ‘종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법적 영역하에 있는 종교, 사회 내 개인이 자기 중심성을 초월하여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지게 하는 종교이다. 도달할 수 없는 고매한 목표와 높은 도덕적 수위를 가진 종교가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상식적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종교다. 양심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종교다. 이전까지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존경과 존중으로 대하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종교’이다. 이런 종교는 윤리적 종교이며, 실천적 종교이며, 이성(상식)적 종교이다. 신앙이 주는 종교체험과 무한한 자유 의식을 상식의 선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종교,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몸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교다.⁴⁸⁾ 그것은 몸 안으로 성스러움을 담고 현실을 남들과 똑같이 살아낼 수 있는 특별함, 즉 모든 인간의 신적 존귀함과 그 의식을 사회 내적 이성과 공동체적 법안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권위는 진리의 단순성에서 온다. 그 투명함으로부터 인식된다. 그러나

48) 장형철,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특성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고찰,” 『신학사상』 184(2019), 211, 234-239.

49) “온전한 역사로 이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의 실정성(positivity)을 주어진 궁극의 배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Slavoj Žižek, *Die Puppe und der Zwerg : das Christentum zwischen Perversion und Subversion*, 김정아 역, 『죽은 신을 위하여: 기독교 비판 및 유토피론과 신학의 문제』(서울: 길, 2007), 7; 김성호, “타자를 향한 교회 -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90(2020), 320, 336-338. 이 글에서 “인간-신(Gott-Mensch)”는 낮아진 하나님, 익명으로 존재한 그리스도를 말하며 대속은 ‘해체된 동일성’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유사종교 안에서 속이는 이와 속는 이, 속이는 법, 속이는 양심, 심지어 법을 이용하는 권력의 폭력을 보았다. 이와 반대로, 권력이 되찾고자 하는 권위, 이성적 도덕성에서 오는 권위는 여기 정치와 개신교에 없었다. 대신, 권력을 쟁취하려는 보수주의와 극우주의의 연합, 극우 행동주의자들을 선동하는 보수주의적 정치세력을 보았다. 실물 자원에 대한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탁월성'과 '권한'에 맞는 보수와 자리가 주어졌던 엘리트와 관료들이 그 보수주의 집단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의 일부는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이제 종교적, 신앙적 힘에 기대어 자신들이 놓쳤던 인정과 권위를 되찾고자 하였다. 이제 그들은 능력과 자리를 다시 부여받는 대신 권위와 의미를 얻고자 한다. 그들은 불과 십수 년 전까지도 한국 사회를 일구어 온, 일구어 갈 주역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복지의 혜택을 얻기보다는 특별한 영향력을 국가에 행사하기 원한다. 그러나 빠르게 변환되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들의 자리는 적절하게 모색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대한 경험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가 매우 빠르게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제적 불안과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거 경험했던 대로 그 힘에서 가장 우월한 힘을 찾아 그것에 의존하고자 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이 한국 사회가 생존할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때로 이데올로기와 이념 속에서 행동으로 작용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 대체물이며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도 국가에게도 효용성이 떨어진 폭력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앞선 관찰과 분석에서 모방의 형태와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모방의 본질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주체성 없는, 스스로의 사고 과정이 없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보지 못한 피식민지성이었다. 극우주의 혹은 전체

주의 현상을 만드는 이들의 탈식민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다.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신적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물리적 힘과 돈과 자리, 혹은 영향력과 인정과 권위를 연결시켜 연고자 하는 강자 모방의 특성을 말한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극우’ 주의는 ‘전체주의’라고 할 수도 없고, ‘파시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불우한 자기 비하이다. 전체주의와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민족을 위하여 받기한다는 선동의 명분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극우주의라고 칭해지는 집단적 현상에는, 유사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종교 이념적 세계관이 이따금씩 인용되며 등장하지만, 그 주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고자 하는가, 무엇을 위해 결속하고자 하는가, 궁극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그리고 있는가를 물을 때, 모두 그 대상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구호 속에 단답형 해답은 있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대상은 모두 허상이었다는 점이다.

신뢰의 대상을 잃어버린 사회, 믿어야 할 지도자를 소실한 국가, 예언자라고 자처하나 정의를 빼놓은 종교, 그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신뢰’ 혹은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존재에 기반인 ‘신’이 있을 곳은 어디인가?

V. 결론

한국개신교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을 경험했던 모든 한국인들의 사고와 심정 속에 울려 퍼지는 질문이다. 한국기독교의 정체성과 지향점은 동시대를 사는 한국 교인들만의 내적 고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부분집합으로서의 종교, 기독교, 개신교의 시공간적 자리를 인식하고 수용하여야 함을 뜻한다.

50) 김석 외, 『라캉과 지젝』, 106.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동기에서 발생하여 한국 사회와 한국개신교의 관계를 최근 발생했던 국가적 사건에서 포착하고자 했다. 우선, 객관적 시각의 렌즈를 통해 사건에서 현상을 포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탐구의 첫 단계는 관찰 단계로서 사건을 사회학적 렌즈로 기술하여 그것이 문제시될 수 있는 현상을 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기술된 현상 자체를 연구 범위로 구성하였다. 이때 포착된 현상은 내란-폭동-한국개신교의 관계 안에서 정치적으로 세력화되는 보수주의와 극우주의의 연관성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현상 안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건과 그 의미를 사회학적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식을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탐구 대상이었던 정치와 종교라는 두 집단의 의미 구조와 역할에 한정하여, 그 현상을 해석하고 성찰하는 단계로 삼았다. 이렇게 전체 세 단계의 구분을 두어 각 단계마다 렌즈 안으로 들어오는 연구 대상의 외형, 내적 특성, 드러난 양태, 관계들의 문제를 다면화하여 보고자 했다. 또한 탐구 대상을 사건에서 의식으로 심화하여 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보였던 한국개신교 집단의 특성을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적인 사례 예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정치-종교적 친화성, 즉 보수정치와 개신교 집단의 결합 특성과 그 성격을 조명하였다. 그 결과 한국개신교 집단에서 나타난 정치적 보수주의와 극우주의의 성격과 역할이 미국의 정치와 종교의 결합 모델에 대한 모방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요컨대, 사회 내 정치적 사태 변화에서 나타난 일정한 종교 현상을 분석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그 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것은 종교적이거나 신학적인 근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모방 욕구로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임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의미 분석 후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단계에서

는, 정치적으로 세력화된 개신교 집단의 보이는 힘을 향한 모방 현상을 놓고 그 정치적 힘에 대한 욕망 표출의 두 방식, 그 이중적 특성과 모순적 상황을 개신교 집단의 정체성과 지향성이라고 인식되는 범위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보수주의 개신교가 극우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개신교 보수주의 집단이 극우화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와 그 근원에 대해 '개신교'라는 정체성에 근거하여 해석해보았다. 그 결과, 실존적인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과 공포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 그것이 인간의 생존 욕구와 관련된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힘에 대한 의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힘에 대한 불안과 박탈감, 두려움 가운데 종교 중에서도 개신교는 더 심리적으로 약한 집단을 행동하도록 고무시켰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권력을 잃었을 때 수단으로 작용하는 폭력, 권위를 소실했을 때 욕망하는 권력, 이 혼합이 각각 우리 사회 현실 속에 위치한 정치와 종교의 모습임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인정되는 권위와 정당한 권력 대신에 취사선택된 폭력과 권력 욕망은 실존적 상황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신뢰의 관계를 붕괴한다는 점도 짚어보았다. 이 문제는 국가적, 세계적,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조적 문제임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용립. 『미국의 정치문명』. 서울: 삼인, 2019.
- 김석 외. 『라캉과 지체』. 파주: 글항아리, 2014.
- 김성호. “타자를 향한 교회 -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90(2020). 319-354.
- 김인수 외. 『폭력을 관통하는 10가지 시선』. 서울: 소명출판, 2013.
- 김진호.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서울: 자음과모음, 2014.
- _____. 『극우주의와 기독교』. 서울: 홀가분, 2024.
- 김평호. 『보수에서 극우로: 공화당의 추락과 미국 정치의 위기』. 서울: 삼인, 2022.
- 박준용·채윤태. “반중 앞에서 ‘반북’이 꼬리 내린 5가지 이유.” 『한겨레21』 1554호(2025)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978.html, 최종접속일 2025.08.08.
- 박홍민·국승민. 『미국에서 본 미국 정치: 선거와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오름, 2024.
- 신혜진. “통일신학의 주체 개념으로 본 분단체제와 한국기독교.” 『한국전쟁 70년과 ‘以後’ 교회』.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1.
-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90.
- 이문영. 『폭력이란 무엇인가: 기원과 구조』. 서울: 아카넷, 2015.
- 이찬수. “탈폭력적 폭력: 신자유주의 시대 폭력의 유형.” 『폭력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15.
- 장형철.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특성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고찰.” 『신학사상』 184(2019). 207-244.
- 전우택 외. 『평화와 반평화: 평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서울: 박영사, 2021.
- 전홍기혜. 『아노크라시(Anocracy): 극우의 반란, 미국 민주주의의 탈선』. 서울: 숨쉬는책공방, 2022.
- 정인선·장종우. “전광훈→유투버→행동대원 체계로 폭동 선동?... 금전 오간 정황도.” 『한겨레』 인터넷판 (2025. 8.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1952.html, 최종접속일 2025.08.08.
- 정재영 외.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21.

- 조병제. 『트럼프의 귀환』. 서울: 월요일의꿈, 2024.
- 주성미. “계몽량·부정선거 주장에 이승만·박정희 찬양까지... 얼룩진 울산지역 대 학가.” 『한겨레』 인터넷판(2025.02.26.)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84350.html>, 최종접속일 2025.08.08.
- 지호일 기자. ‘원세훈, 촛불집회 트라우마로 선거 때마다 야당 비방 행위.’ 『국민일 보』 2013년 6월 14일.
- 추태화. 『권력과 신앙』. 인천: 씨코북스, 2012.
- Adorno, Theodor W.. *Aspekte des neuen Rechtsradikalismus*. 이경진 역. 『신극 우주의의 양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0.
- Arendt, Hannah.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1970.
- _____. *Crises of the Republic*. 김선옥 역. 『공화국의 위기: 정치에서의 거짓말 · 시민불복종 · 폭력론』. 파주: 한길사, 2022.
- Ben-Ghiat, Ruth. *Strongmen: Mussolini to the present*. 박은선 역. 『극우, 권위주의, 독재』. 파주: 글항아리, 2025.
- Dadoun, Roger. *(La) violence: essai sur l'“homo violens”*. 최윤주 역. 『폭력: ‘폭력적 인간’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6.
- Fuller, Lon L. *The Morality of Law*. 박은정 역. 『법의 도덕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 Harvey, David. *(The) new imperialism*. 최병두 역. 『신제국주의』.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5.
- Rene,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e*. 김진식, 박무호 역. 서울: 민음사, 2001.
- Ricoeur, Paul. *La symbolique du mal*. 양명수 역. 『악의 상징』.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 Robin, Corey. *(The) reactionary mind: conservatism from Edmund Burke to Sarah Palin*. 천태화 역. 『보수주의자들은 왜』. 고양: 모요사, 2012.
- Sofsky, Wolfgang. *Traktat uber die Gewalt*, 이한우 역. 『폭력사회: 폭력은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파주: 푸른숲, 2010.
- Maihofer, Werner. *Rechtsstaat und menschliche Würde*. 심재우, 윤재왕 역.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서울: 세창출판사, 2019.
- Mannheim, Karl. *Ideologie und Utopie*.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청아, 2000.

Oh, Michael. “권위주의와 기독교 국가주의의 위험한 동거.” 『뉴스앤조이』(인터넷 판 2024.10.02.) <https://www.newsjoy.us/news/articleView.html?idxno=24929>, 최종접속일 2025.08.08.

Zizek, Slavoj.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란 숭고한 대상』. 서울: 길, 2007.

_____. *Die Puppe und der Zwerg: das Christentum zwischen Perversion und Subversion*. 김정아 역. 『죽은 신을 위하여: 기독교 비판 및 유물론과 신학의 문제』. 서울: 도서출판길, 2007.

_____. *Did somebody say totalitarianism?: five interventions in the (mis)use of a notion*. 한보희 역.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서울: 새물결, 2008.

_____. *Ideology in a post-ideological age*. 김상환 외.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논문투고일: 2025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11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한국 사회와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24. 12. 3 계엄 사건이 일어났던 직후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 절차를 따라가며 안정적인 사회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건의 양상이 달라졌고, 사회 내 또 다른 시민들에 의한 폭동이 발생했다. 그것은 과격한 시위와 종교집회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폭력적 정치 행위 속에 한국개신교가 관련되어있는 정황들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개신교의 정치적 활동 중에서도 최근에 그 활동이 부각된 개신교 보수주의와 개신교 극우주의를 초점에 두고 이들의 활동과 특성, 그 관계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폭력적 사건들의 형태와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폭력 사태들과 어떤 유사성을 갖는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현상을 포착하여 판단중지 상태로 사건 자체를 기술하고 그 의미를 찾았다. 둘째, 포착된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탐구하기 위해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사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된 사건의 근원과 그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개신교 집단의 정체성이라는 틀 안에서 살펴보고 그 지향성을 조준하기 위한 현재적 자리를 짚어보았다. 종교의 사회 유지 기능이나 예언자적 개혁기능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이 확인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의 영역이 소실되고 있는 현상임을 알려준다.

주제어: 한국개신교, 정치적 모방, 폭력, 권력, 권위
